



# 야구 WBC·월드컵 축구 예선 국내·해외파 선수들 활약... 스포츠 열전은 계속된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20개월의 침묵을 깨고 돌아왔다.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의 디데름이 될 2013년, 김연아의 매혹적인 연기가 전세계 피겨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 2013년 스포츠

2013년 계사년(癸巳年), 심장을 두드리는 스포츠 열전은 계속된다.

한국 야구의 저력을 알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표팀,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겨냥하고 있는 '최강희호', 돌아온 방판의 여왕 김연아, 세계 정상 지키기에 나서는 LPGA 태극남자 등. 풍성하고 짜릿한 승부가 2013년을 맞는다.

◇윤석민, WBC 마운드를 지켜라.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는다.

야구 최강국을 가리는 제 3회 WBC 본선 1라운드의 대결이 3월2일 시작된다. 1·2회 성적으로 본선에 직행한 12개 나라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4개 나라 등 총 16개 나라가 각국의 자존심을 걸고 힘겨투기를 한다.

2006년 초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한국은 2009년 2회 대회에서는 일본과 다섯 차례 명승부를 연출하며 준우승을 차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앞선 대회에서 빅리그의 강타자들을 잠재우며 세계의 이목을 끈 윤석민이 마운드 전면에 선다.

LA 다저스에 입성한 '괴물' 류현진과 김광현(SK), 봉중근(LG) 등 막강 '좌완 트리오'가 팀 적응과 부상 등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윤석민의 어깨가 무겁다.

KIA에서는 한국의 외야와 기동력을 책임져온 '날쌘돌이' 이용규가 투혼의 승부를 준비하고 있고, 6년 만에 대표팀에 승선한 서재응은 관복투로 후배들을 이끈다.

대만, 호주, 네덜란드와 B조에 편성된 한

## 윤석민·이용규 등 WBC 투혼의 승부 준비 월드컵 태극전사들 3월26일 카타르진 출격 김연아 내년 소치 올림픽 출전권 확보 나서

국은 3월2일부터 대만에서 1라운드를 치른다. 상위 2위 안에 들면 3월8일 일본 도쿄돔에서 시작되는 2라운드에 진출한다.

3월18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4강 대결이 이뤄지며 결승은 3월20일 열린다.

◇'최강희호' 8번째 본선 무대 밟는다.

지난해 확정하지 못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최강희호'가 스파이더 끈을 다시 맨다.

한국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0 남아공 월드컵까지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하며 아시아 맹주 자리를 지켜왔다. 아시아 최초 4강,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에게 주어질 목표는 8번째 본선 진출.

조광래 감독의 경질 논란 속에 사령탑을 맡은 최강희 감독은 최종예선 카타르, 레바논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에서 2-2로 비긴 뒤 4차 이란 원정에서는 0-1로 지며 2승1무2패(승점 7)를 기록하고 있다.

최종예선 A조에서 1경기를 더 치른 우즈베키스탄(2승2무1패·승점 8)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태극전사들은 3월26일 카타르와 최종예선 5차전을 시작으로 4차례 최종예선을 치른다. 이중 3경기가 안방에서

펼쳐지면서 본선 진출 도전이 한결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돌아온 '피겨 여왕' 세계를 뒤흔든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NRW트로피 대회를 통해 20개월 만에 열려하게 방판에 돌아왔다. 변함없는 기술과 무르익은 연기로 여왕의 부활을 알린 김연아에게 올해는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을 위한 리허설 무대다.

김연아는 4월부터 6일까지 열리는 국내 종합선수권대회를 통해 시즌을 연 뒤 3월 캐나다 런던에서 열리는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지난 시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연아는 종합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 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빙판 복귀를 선언하면서 소치 동계 올림픽 출전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만큼 더 큰 무대에 도전하는 김연아의 무르익은 연기가 기대된다.

◇해외파 선수들의 잠 못 이루는 밤.

2012년의 아쉬움을 털고 유럽 축구리그의 태극전사들이 기지개를 켜다.

잉글랜드에는 박지성(퀸스파크레인저스·QPR), 기성용(스완지시티), 지동원(선덜랜드), 이청용(볼턴), 김보경(카디프시티), 독일에는 구자철(아우구스부르크), 손흥민(함부르크), 차두리(뉘셀도르프) 그리고 스페인에는 박주영(셀타 비고)이 있다.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2012년이었다. 기성용이 올림픽 동메달 획득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지만 망명 박지성은 전통의 축구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최악의 QPR로 동지를 옮긴 뒤 부상 등에 발목 잡히며 벤치 신세로 전락하며 아쉬운 한해를 보냈다. 공격수 지동원도 전력 외로 취급 받으며 단 한 차례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부진 탈출과 세력 확장을 위한 유럽과 선수들의 움직임이 2013시즌에도 밤잠을 잊게 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한국프로야구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류현진(LA 다저스)의 빅리그 도전기도 2013시즌 큰 관심사다.

◇LPGA '트로이카' 시대

'지존' 신지애(미래에셋)가 지난 시즌 브리티시 오픈 제패로 부활에 성공한 가운데 최나연(SK 텔레콤)에 이어 박인비가 지난 시즌 L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리며 한국여자자골프는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다.

'말안나' 박세리(KDB금융그룹)를 시작으로 후배들이 LPGA 투어 우승 페레이드로 한국여자자골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신지애, 최나연, 박인비가 들어올



야구 강국을 가릴 WBC의 열전이 3월2일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대표팀 전면에 선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 진출을 노리는 '최강희호'가 3월26일 카타르와의 최종예선을 시작으로 브라질을 위한 마지막 여정에 나선다.



기성용



신지애

린 우승컵만 해도 6개. 4개의 메이저대회 중에 신지애와 최나연이 1개씩을 가져갔고 유선영(정관장)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3개의 우승컵을 한국 선수들이 싸움이 했다.

2013년에는 예비양 마스터스 대회가 메이저대회로 승격되면서 5개의 메이저대회 태극남자들이 기다린다.

신인왕 유소연까지 더한 태극 남자들의 샷이 2013시즌에도 필드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새 출발선에 선 프로야구·프로축구  
지난해 프로스포츠 사상 첫 700만 관중시대를 연 프로야구가 3월30일 32번째 시즌을

연다. WBC의 기세를 몰아 흥행 잇기에 나서는 프로야구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NC 다이노스가 1군에 진입하면서 9구단 체제로 시즌이 운영 된다. 팀당 경기 수가 133경기에서 128경기로 줄어들지만 총 경기 수는 532경기에서 576경기로 늘어난다.

홀수팀 체제로 인한 경기 일정의 변화로 각 팀들의 전략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연전이 도입되며 2~3연전을 뛰어가는 팀들이 생기는 만큼 정규리그 성적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프로야구 개막에 앞서 먼저 스타트를 끊는 K리그의 생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다. 2012시즌 도입된 강등제를 통해 상주와

광주가 2부리그로 추락, 14개팀이 1부리그 우승컵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본격적인 생존싸움은 2013시즌부터다. 추가로 2개 팀이 2부로 내려가게 되면서 피 말리는 순위 싸움이 전개된다.

본격적인 2부리그 출범도 이뤄진다. 첫 강등팀의 운명을 맞은 광주가 3월16일(개막 예정) 2부리그에 첫 발을 내딛는다. 강등에 따른 선수들의 이동 속에 2014시즌 1부 복귀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호화 멤버의 상무·경찰청 등을 꺾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뒤에야 1부리그 12위 팀과 강등과 승강을 위한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다.